

반복되는 일상에서 ‘기분 좋은
느슨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민대학에서 배우는
과정이 일상에 에너지를 줄 뿐만
아니라 평생 학생의 자세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2023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사례집

즐거운
발돋움



2023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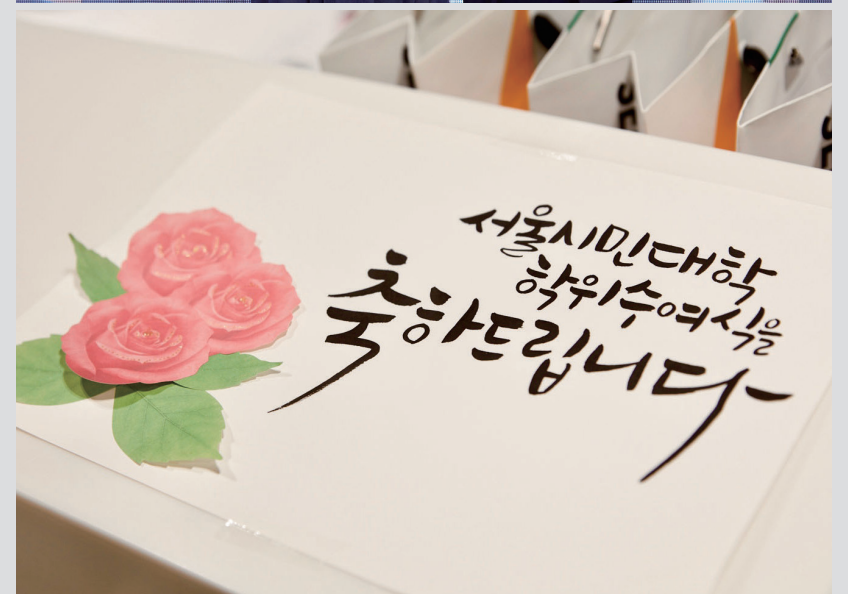
즐거운
발돋움















CONTENTS

2023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사례집 즐거운 발돋움



들어가는 글	16
사업소개	명예시민학위제란? 20
	시민학사 22
	시민석사 24
	시민박사 26
수업소개	석사 공통과목 30
	석사 특화과목-자원봉사 32
	석사 특화과목-시민기자 34
	박사 공통과목 35
학습소감	직접 듣는 명예시민학위제 38
	학습자 롤링페이퍼 50
사업성과	숫자로 만나는 명예시민학위제 54
	역대 연구 결과물 목록 56

명예시민학위로

내 친구는 요새 뭐가 그리 바쁜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한다. 친구랑 나는 별일 없는 날이면 항상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는 계속 바쁘다며 어디론가 가곤 했다. 스마트폰도 그렇게 어렵다던 사람이 노트북도 배웠고, 바쁘다 시간 없다 하면서도 항상 해벌쭉해서 다닌다. 무슨 일이라?

도대체 혼자 뭐 이리 즐거운 곳을 가길래 얼굴도 짝 펴진 건지, 오늘은 친구 녀석을 좀 따라다녀 봐야겠다. 갑자기 후회 가득! 이 더운 날 이 언덕길을 올라간다고? 대체 어딜 가는 건데!!! 길을 올라 낯설지만 웬지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에 들어섰다. 여긴 뭐하는 곳이지? 생각할 새도 없이 친구는 익숙하게 강의를 들으러 갔다. 나는 친구가 강의를 듣는 동안 공간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강의가 끝난 후, 라운지에 앉아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챗바퀴 같은 일상을 좀 더 유익하고 알차게 보내고 싶어서 찾아보던 중 이곳, 시민대학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시민대학? 서울시민대학은 시민이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친구는 이곳에서 평소 배우고 싶어 하던 컴퓨터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히기 위해 인문학, 미술 등 다양한 강의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 시민학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고 했다.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학교에 엄청 가고 싶어 하더니 시민대학에서 강의만 들었을 뿐인데 학사학위를 받게 되었다고 기뻐한다.

학사모를 쓰는 그날까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한다. 접어둔 줄만 알았던 꿈을 좇고 있다니 나랑 시간을 털 보내는 건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대견하다. 올해부터는 시민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나도 한번 해 봐?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들으니 삶이 한층 다채로워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날은 피곤하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했지만 학위를 받다 보니 학교에 출석하듯 꾸준히 학습하러 다닐 수 있었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공부세포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나도 내년부터는 친구와 같이 학습하러 와야지.

학사모 쓰고 학위 받는 그날까지!

* 명예시민학위제 참여자의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글입니다.

1

사업 소개

- 명예시민학위제란?
- 시민학사
- 시민석사
- 시민박사



명예시민학위제 사업 소개

명예시민학위제란? 서울시민대학에서 학습한 경험을 인정하여 비공식 명예시민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민대학에서 다양한 학습경로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학습의 동기 부여를 위해 만든 서울시민대학의 특별한 제도입니다.

※ 고등교육법상 공인된 학위가 아닌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비공식 학위 제도입니다.



명예시민학위 취득 기준

구분	시민학사	시민석사		시민박사
		일반트랙	실천트랙	
자격 대상	시민대학 학습자	시민학사 취득자		시민석사 취득자
인정 기간	2013년부터	시민석사과정 승인 이후		시민박사과정 승인 이후
이수 시간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연구 결과물	-	1건 제출(개인/팀) 졸업심사		1건 제출(개인/팀), 학습동아리 보고서 1건 제출 졸업심사

※ 시민대학 강좌는 서울시평생학습포털-서울시민대학 내 등록된 강좌에 한해 인정됩니다.

나도 도전한다! 명예시민학위!

시민학사가 되고 싶어요!



시민학사	
자격대상	서울시민대학 강의를 100시간 이상 수료 하면 ‘나도 시민학사!’
이수 방법	- 5주차 강좌 기준 10과목, 10주차 강좌 기준 5과목 수료 시 100시간 - 100시간 이상 수료한 학습자가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 로그인 시 시민학사 신청 팝업이 생성되므로 해당 경로로 신청
신청방법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seoul.go.kr) 접속 → 서울시민대학 → 강좌 수강

시민석사가 되고 싶어요!



시민석사	
자격대상	서울시민대학 강의 200시간 이상 수료 와 연구 결과물 승인 시 ‘나도 시민석사!’
이수 방법	- 시민석사과정에 승인 받은 학습자에 한해 수강 가능 - 시민학사에서 취득한 이수 시간과 무관하며, 시민석사과정 입학 승인 이후 200시간 수강 필수
신청방법	시민학사 취득과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2월 시민석사과정 수강생을 모집하므로, 지원 신청 후 연구 결과물 승인 시 ‘나도 시민석사!’

시민박사가 되고 싶어요!



시민박사	
자격대상	서울시민대학 강의 300시간 이상 수료 와 학습동아리 보고서 + 연구 결과물 승인 시 ‘나도 시민박사!’
이수 방법	- 시민석사 연구주제와 관련해 심화 연구 가능 - 시민박사과정에 승인받은 학습자에 한해 수강 가능 - 시민석사에서 취득한 이수 시간과 무관하며, 시민박사과정 입학 승인 이후 300시간 수강 필수
신청방법	시민석사 취득자를 대상으로 매년 8월 시민박사과정 수강생 모집 ※ 연구 주제는 자유롭게 선정하되 연구 과정과 결과가 현 서울시정에 부합하고 이에 활용될 수 있는 공적 가치(공익성)를 포함해야 함

시민학사

시민학사란? 명예시민학위제의 첫걸음으로, 서울시민대학의 강좌만 들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 조건

신청 대상	서울시민대학 학습자
취득 조건	2013년~현재 서울시민대학 강의 100시간 이상 수료자
비고	· 인정과목: 서울시민대학 강좌 (서울시평생학습포털-서울시민대학에서 확인) · 서울시민대학 강좌 수료조건: 10주 과정 70% 이상, 5주 과정 80% 이상 출석

· 취득 예시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하반기
- 신청 방법



시민석사

시민석사란? 명예시민학위제의 두 번째 걸음으로, 서울시민대학의 강좌 수강과 함께 나만의 연구 결과물을 만들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석사는 일반트랙과 실천트랙으로 나뉩니다.

일반트랙	실천트랙*
------	-------

일반 학습자	협력기관 연계과정 학습자
--------	---------------

* 학습과 실천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경험을 학습시간으로 인정하는 교육 과정으로 2023년에는 총 2개의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운영

- **자원봉사-시민석사과정:** 자원봉사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
- **시민기자-시민석사과정:** 시민기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

- 취득 조건**
- **신청 대상:** 시민학사 취득 후 시민석사과정 입학에 승인받은 자
 - **취득 조건:** 시민석사과정 입학 승인 이후 200시간 강좌 수강과 연구 결과물 승인을 받은 자
 - **취득 예시**

구분	일반트랙			실천트랙				
대상	시민학사 취득자 혹은 취득 예정자							
입학방식	입학심사위원회 개최			협력 기관에서 선발				
졸업 요건	200시간 이수 + 연구 결과물 승인							
세부시간 (시간)	시민대학 정규강좌	공통 과목	전공 세미나	시민대학 정규강좌	공통 과목	전공 세미나	특화 과목	실천 학습
	80	80	40	20	40	40	60	60
연구 결과물	전공세미나에서 졸업 연구 진행과 결과물 산출(개인/팀)							
졸업심사	전공세미나 과정에 포함, 중간발표회와 최종심사로 구성 졸업심사 최종 승인(시민석사학위 취득 요건 충족 시 졸업)							

인재상	주체적 시민	전문적 시민
	·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학습을 통해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민	· 지역을 비롯한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전문적 시선을 지닌 시민
	글로벌 시민	공동체 시민
	· 미래적 관점을 바탕으로 인권, 평화, 생명과 관련해 포용적 소양을 갖춘 시민	· 철학적, 역사적, 윤리적, 생태적, 미래적 사유를 바탕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2월 예정)
 - **신청 방법:**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seoul.go.kr>) → 서울시민대학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전공세미나

시민석사 학위 취득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관심 주제에 따라 그룹을 구성하고 지도교수를 배정합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학습자와 함께 지도를 받으면서 연구 결과물을 완성해 나갑니다. 결과물은 보고서, 에세이, 강의(안),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운영 과정**
전공세미나 신청 → 주제탐색 워크숍 → 연구주제 발표회 → 지도교수 배정 → 그룹별 연구 수행 → 중간심사 → 최종심사 → 결과물 보완 후 제출

시민박사

시민박사란? 명예시민학위제의 마지막 걸음으로, 석사과정에서 진행했던 연구에서 한 걸음 성장하여 ‘공익성’을 강화한 연구 활동과 실천 학습을 진행합니다. 시민박사과정 교육과정 수강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 승인 시 시민박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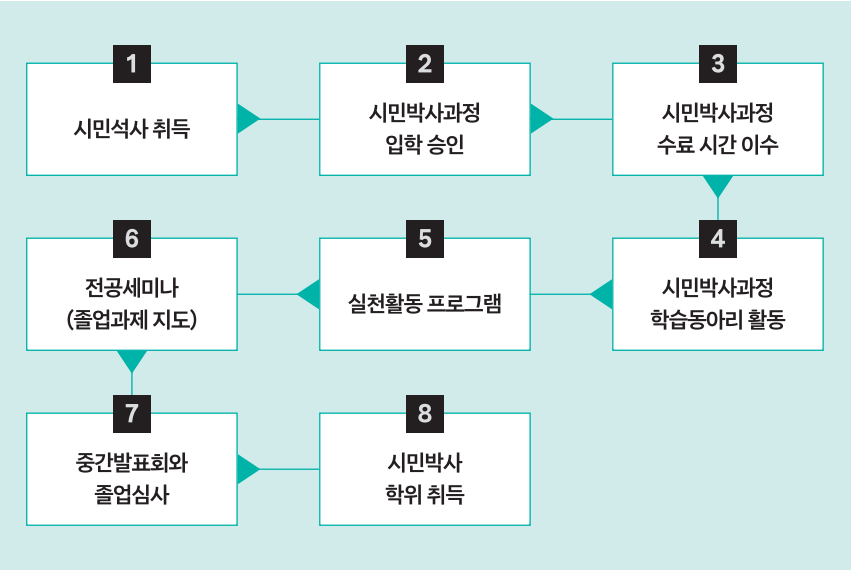
- 취득 조건**
- 신청 대상: 시민석사 취득 후 시민박사과정 입학을 승인받은 자
 - 취득 조건: 시민박사과정 입학 승인 이후 300시간 강좌 수강과 연구 결과물 승인을 받은 자 (학습동아리 활동 보고서 필수 포함)

구분	세부 내용				
대상	시민석사 취득자				
입학방식	입학심사위원회 개최 (연구계획서 제출 후 서류전형 → 면접 심사)				
졸업요건	300시간 이수 + 연구 결과물 승인 ※ 학습동아리 활동 보고서 필수				
세부시간 (시간)	시민대학 정규강좌	공통과목	전공세미나	실천활동	학습동아리
	50	100	60	40	50
연구 결과물	전공세미나에서 졸업 연구 진행과 결과물 산출(개인/팀)				
졸업심사	전공세미나 과정에 포함, 중간발표회와 최종심사로 구성 졸업심사 최종 승인(시민박사학위 취득 요건 충족 시 졸업)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하반기(8월 예정)
 - 신청 방법: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 서울시민대학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시민박사과정 파헤치기

· 한눈에 보는 시민박사학위 취득 과정



전공세미나

시민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관심 주제에 따라 그룹을 구성하고 지도교수를 배정합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학습자와 함께 지도를 받으면서 연구 결과물을 완성해 나갑니다. 결과물은 연구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로 도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시민박사의 경우 개인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서울과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민성과 공익성을 담은 연구 결과물 도출을 지향합니다.

· 운영 과정

전공세미나 신청 → 연구주제 발표회 → 지도교수 배정 → 그룹별 연구 수행 → 중간심사 → 최종심사 → 결과물 보완 후 제출

학습동아리

참여자 간 교류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유사한 연구 주제별 학습 모임으로 구성됩니다. 학습동아리별로 서로의 연구 내용을 교류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진행합니다. 독서 모임을 꾸려 지도교수의 추천 도서를 읽어보며 함께 꾸준히 학습하거나 하나의 학습공동체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습의 지속성을 통해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2

수업 소개

- 석사 | 공통과목
- 석사 | 특화과목-자원봉사
- 석사 | 특화과목-시민기자
- 박사 | 공통과목



명예시민학위제 수업 소개

시민석사와 시민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서울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위제 과정 중인 학습자를 위한 공통과목과 특화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수업은 학위와 트랙 과정에 따라 다른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석사

공통과목

시민석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대학의 강좌 중 석사과정 학습자만 수강할 수 있는 공통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과목의 경우 일반트랙과 실천트랙 학습자가 함께 수강합니다. 공통과목은 서울시민대학의 교육철학과 시민석사 인재상, 사유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 시민석사과정 사유체계: 철학적 사유, 역사적 사유, 윤리적 사유, 생태적 사유, 미래적 사유, 미학적 사유

- 운영 기간: 상반기(3~6월), 하반기(9~11월)
- 운영 방식: 블렌디드*(대면수업 3회+녹화강좌 수강 7회)
- 수강료: 과목당 2만 원

*블렌디드 강좌: 한 강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강좌로 온·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을 혼합하여 학습 기회 확대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 방법입니다.

· 강좌 안내

강좌명	주요 내용
문명과 미래	문명사 전반에 걸친 이해와 함께 우리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향상하는 과정으로 오늘의 현실이 어떤 과거와 맞닿아 있으며, 어느 공간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파악한다.
미디어의 이해	미디어는 단순히 소비하고 즐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감시하며 생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공론장이다. 미디어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미디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생애설계의 철학	자신의 삶과 관련해 철학적 성찰의 힘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생애설계 역량을 향상하는 과정이다. 인간 발달 과정의 기존 논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각자의 구체적인 발달 과제를 탐색하고 수행 방향을 점검한다.
세계시민	지난 지식의 역사에서 차별과 억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인류의 삶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여전히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마주하면서 앞으로 도래할 미래를 지키고,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량을 향상한다.
윤리와 논쟁	“왜?”라는 질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드러나 있는 판단과 잠재되어 있는 판단의 성격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실현되어야 할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훈련을 한다.



시민석사 특화과목은 실천트랙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습자가 수강하는 강의입니다.
각 과정의 특색에 맞는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운영 기간: 연계기관별 상이
- 운영 방식: 대면수업(5회 강좌)
- 수강료: 연계기관 납부

「자원봉사-시민석사과정」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과정으로 시민의 봉사활동 경험을 학습시간으로 인정하여 개인의 경험이 학습으로 이어지고,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 강의는 기초인문교양교육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

· 자원봉사 과정

강좌명	주요 내용
모르고도 사는 삶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삶과 얹 사이의 모름에 주목하여 인생에 물음을 던져본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고 삶과 죽음을 알아보고 토론한다.
가곡과 아리아	가곡을 배우고, 직접 체험해보는 과정으로 오페라 작품을 감상하고 토론한다. 호흡과 발성을 배우고 직접 가곡을 불러보면서 예술을 경험하고 표현하며 다양한 감성과 감각을 지각한다.
사회구조의 이해와 자원봉사 연계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해석해 보면서 지역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의미 탐색	시민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반추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지적 토대를 마련하는 강좌로 나의 활동 내용과 그 경험의 가치를 해석해 본다.
몸챙김을 통한 자기돌봄	직접 몸의 움직임을 탐구해보는 실천학습을 통해 몸의 자각력을 높여 몸과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조절하면서 나를 이해하고 내면의 힘을 회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주인공 인생살기, 셀프코칭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자원인 나다움을 발견하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계획을 구축해본다. 삶의 리더로서 나의 가치를 발견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기자-시민석사과정」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과 연계한 과정으로 시민기자의 활동 경험을 학습시간으로 인정하여 시민기자들의 "내 손안에 서울" 발행기사 작성을 위한 취재 역량을 강화하고, 언론학과 미디어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배워보는 과정. 강의는 취재 및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

· 시민기자 과정

강좌명	주요 내용
미디어의 발전과 뉴스 콘텐츠의 변화	시민기자로써 알아야 할 언론학, 취재론, 미디어론의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사례를 통해 미디어와 언론의 새로운 현상을 배우고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도록 토론을 진행한다.
누구나 될 수 있는 기자, 아무나 쓸 수 없는 기사	기사를 발행하기 위한 ‘기획-취재-작성’ 단계별 전문적인 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강좌로, 실제 기사를 함께 리뷰하면서 좋은 기사를 구별하는 안목을 기르고, 직접 기사를 취재·작성하여 전문성을 함양한다.
찰나를 담아 세상을 전하는 사진 취재	독자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사진 촬영을 위해 카메라의 기본 프로그램을 익혀 응용, 활용할 수 있는 매커니즘 강의이다. 또한 촬영한 사진을 함께 보면서 서로 피드백하고 토론한다.
디지털 시대, 독자를 사로잡는 저널리즘	많은 사람이 읽고, 보고 싶어하는 기사, 재밌으면서도 믿을 수 있는 뉴스 콘텐츠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실제 취재를 진행하고 기사로 생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뉴미디어 시대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뉴미디어 시대 영상저널리즘을 알아보고 뉴미디어 환경과 다변화하는 플랫폼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봄으로써 동영상 뉴스 제작의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진짜 시민기자의 뉴스 취재	시민기자로써 현장성과 인터뷰 능력을 기르기 위해 기사거리를 발굴하는 방법과 나만의 전문분야를 찾는 법, 인터뷰 요령과 글쓰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한다.

시민박사

공통과목

시민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대학의 강좌 중 박사과정 학습자만 수강할 수 있는 공통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연구에 필요한 기초연구방법론과 논리적 글쓰기 방법 등 박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교양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운영 기간: 1차 연도(9~11월), 2차 연도(1~12월)
- 운영 방식: 대면수업(10회 강좌)
- 수강료: 과목당 3만 원

· 강좌 안내

강좌명	주요 내용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의 기초와 실제	논문작성의 기본 절차와 단계별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문헌 고찰을 수행하며 연구주제와 관련된 핵심 논문이나 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법을 배운다. 더 나아가 자신의 관심 연구주제를 발전시켜 소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학문의 목적: 자기 자신이 되는 것	학문이란 무엇인지 학문의 목적을 이해하고, 학문과 자아실현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학문의 방법인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행한다.
논리적 글쓰기	분석적, 비판적 읽기 연습을 통해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논리적 글쓰기의 기초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을 습득한다.
실천 워크숍 (가칭)	2024년 공개 예정
공공정책 이해하기 (가칭)	2024년 공개 예정

3

학습소감

- 직접 듣는 명예시민학위제
- 학습자 롤링페이퍼



믿음과 자기만족이 가장 큰 원동력

시민석사과정

김영석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민대학 시민석사과정 일반트랙에 참여하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시민석사과정에 입학한 이유는?

제가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내용을 주제로 연구하고 그것을 보고서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시민석사과정에서 가장 기대한 점이 있다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고전·역사 분야와 관련해 전문가와 연구자분들이 깊이 있는 강의를 해 주시고 또 그것을 학습하고 발전시켜서 연구보고서 형태로 의미 있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즉, 자기주도학습으로 연구보고서라는 결과물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크게 기대했습니다. 지금도 그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와요.

스스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과 자기만족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참여했던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저는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수업만 들어서 다 좋았지만, 특히 작년에 수강했었던 '한강으로 읽는 서울 공원의 역사'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겸재 정선의 그림을 통해 한강의 역사를 읽고, 그 현장을 찾아 당시에 겸재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강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아요.

시민석사과정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을 꼽는다면?

“學而時習之 不亦說乎(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 논어의 학이편 맨 앞에 나오는 말이죠. 가장 좋았던 점은 이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뜻인데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기분 좋은 느슨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민대학에서 배우는 과정이 일상에 에너지를 줄 뿐만 아니라 평생 학생의 자세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시간 관리였어요. 제 일과 활동 외에 강의를 참여하기 위한 시간을 비워둬야 한다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난제죠. 꼭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었던 강의는 아직까지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어요.

진행 중인 연구를 설명한다면?

저는 ‘폐비 윤씨의 삶과 죽음-회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더 말씀드리면, 폐비 윤씨는 조선 제9대 왕인 성종의 제2계비이면서 10대 왕인 연산군의 어머니예요. 비극적인 죽음으로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는 많이 쓰이는데 찾아보니 연구한 논문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분의 묘, 이것도 왕비에서 폐서인 되어 왕릉이 아닌 묘인데 그래서 저는 그 회묘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 회묘 구성과 이장 과정 등을 사료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정리해 보려고 해요.

2년의 긴 시간 동안 석사과정을 꾸준히 참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인간을 때때로 ‘학습하는 인간’이라고 하죠. 저는 석사과정 중에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어요. 학습으로 지식을 축적하면서 제 스스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과 자기만족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명예시민학위제를 참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본다면?

‘기분 좋은 느슨한 긴장감’이 생겼어요. 평소에도 제가 좋아하는 인문학, 고전, 역사를 나름대로 공부했지만, 마치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시민대학과 함께하면서부터는 일정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달라진 점이에요.

나에게 시민대학이란?

저에게 시민대학이란 지식충전소입니다. 저에게 기분 좋은 설렘을 주고 지식을 충전할 수 있게 해 주는 곳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시민석사과정에 참여할 후배 학습자에게 전하는 한마디.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학습하고 또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정진하면 권태로운 일상에 신선한 즐거움과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거나 삶의 모멘텀이 필요한 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저에게 시민대학이란
지식충전소입니다.
기분 좋은 설렘을 주고
지식을 충전할 수 있게
해 주는 곳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새로운 호기심 상자

시민석사과정
신향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신향연이에요. 이름을 소개할 때 플라톤의 '향연'을 자주 언급하는데, 전공세미나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술이 있어야 겠네요”라고 하셔서 잠시 학우들과 웃었던 일도 있어요. 시민대학에서는 자원봉사-시민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밖에서는 학교와 도서관에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책과 통하는 강의와 청소년이 봉사학습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은 봉사활동의 동기 부여와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필요한
봉사활동에 관한 질문과 고민을
풀어보기 위해 입학を決했습니다.

시민석사과정에 입학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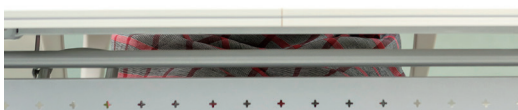
저는 2007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동안의 제 활동을 돌아보며 제 활동을 점검, 보완하고 봉사의 의미를 되새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석사과정은 봉사활동의 동기 부여와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필요한 봉사활동에 관한 질문과 고민을 풀어보기 위해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석사과정에 입학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다른 구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와 만나는 기회가 가장 기대됐어요. 자원봉사 연계 과정의 경우 다양한 구에서 활동 중인 분과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자원봉사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참여했던 수업과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다 좋았지만, 딱 한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가곡과 아리아’라는 수업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좋은 일 하시는 훌륭한 분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순간 마음이 짹하게 울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처음 뵈었지만,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 사람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봉사할 때 중요한 것이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을 존중할 수



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그 힘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수업에서 현장학습 갔던 것이예요. 물론 강의실에서 듣는 강의도 좋지만, 야외수업은 흔치 않으니깐 더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우리 과정을 함께하시는 분 모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날도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분들과 함께하니깐 더 기뻐요. 그날의 날씨, 우리의 웃음소리, 교수님이 전해 주시는 말씀 모든 게 잘 어우러진 날이었어요. 또 한번은 수업시간에 리포트 발표가 있었는데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조금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좋았고, 동기 부여와 자극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학습매니저들께서 많이 반겨주시고, 잘 챙겨주신 것도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덕분에 빨리 공부하러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연구 결과물로 작성해 보고 싶은 주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청소년 자원봉사의 의미와 프로그램, 그리고 셀프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원봉사에 호기심을 갖게 할 요소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삶과 봉사에서 중요한 게 이런 종류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보면 사람의 성향도 있지만 환경이 갖춰졌을 때 이런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로 연구해 보고 싶었어요. 또 제가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데 자원봉사 과정을 여러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서로 돕기도 하고, 또 간식 같은 것을 나눠먹기도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런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위한 연구도 해 보고 싶어요.

시민석사과정 입학 전과 후를 비교해 본다면?

공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졌어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주변의 변화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좀 더 많이 배우고 알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만들어지는 커리큘럼은 없잖아요. 지금 듣고 있는 수업도 다 석사과정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으로 구성되었을 텐데 그래서인지 듣다 보면 전체적 흐름 속에서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명예시민학위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새로운 호기심 상자요. “이리와! 여기서 공부해~ 여기서 사람 만나~”하고 웃어주는 것 같거든요.

예비 시민대학 학습자와 석사과정 이수생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시작은 어렵지만, 끝에는 소중한 보물이 내 안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과정을 제가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제가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발맞춰 가면서
함께 졸업할 생각입니다.



발맞춰 가면서 함께 졸업할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혹은 다짐.

우선 시민석사과정의 남은 강의를 잘 듣고, 연구 결과물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예요. 결과물이 격정되기도,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교수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싶어요. 또 같은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과 정기모임이나 연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여러 분야에서 바쁘게 봉사하고 있는 만큼 의견 수렴이 중요하겠지만요!

시민석사 자원봉사과정이 평소 봉사활동에 도움된 점은?

과정 중에 배운 내용을 지금까지 해 온 봉사활동에 접목해 보면서 그 의미와 가치를 다시 정리할 수 있었어요. 고민했던 문제를 다시 꺼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았죠. 지나간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만나게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원봉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저의 봉사활동에 긍정적 변화를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큰 이점은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학우들의 오랜 봉사 경험과 조언, 나눔이 위로와 지지가 돼요. 귀한 분들과 귀한 수업을 듣게 되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

시민석사과정

노유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민대학 시민기자-시민석사과정 1기를 수강 중인 노유진입니다. 20대 귀여운 막내인데요(웃음). 감사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시민석사과정에 입학한 이유는?

저는 올해 처음 서울기자단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서울시민대학의 ‘시민기자-시민석사과정 1기’를 모집한다는 공지사항을 봤고 특히 학·석사 통합 과정이라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지원했습니다

결국 누구보다 서울 사람이 되었어요.
‘아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석사과정에서 가장 기대한 점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전문성 함양’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글쓰기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신문편집부에 들어갔고, 대학교 때는 4년간 대학 홍보팀 소속 블로그 기자단도 했어요. 전공도 ‘국어교육’을 선택할 만큼 글쓰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제는 프로 시민기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참여했던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이기문 기자님 수업이요! 시민기자단 온라인 강의 때도 봤는데 오프라인에서 보니 더 신기하고 반가웠어요. 강의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열띤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쩌라고”(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엄청나게 웃긴 표현이라 수강생 모두 웃었음)라는 유행어(?)도 있을 만큼 상당히 재밌으십니다. 저희의 기사 피드백과 책 추천도 해 주셨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기사를 더욱 잘 쓰고 싶다는 데 동기 부여가 됐습니다. 또 SBS 박수진 기자님과 수원시민기자단 김소라 기자님의 수업도 좋았어요.

시민석사과정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을 꼽는다면?

먼저 좋았던 점은 시민기자단 활동이 자율이라 자칫 마음이 해이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끔 하는 데 동기 부여가 됐어요. 힘들었던 점은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업을 같이 해야 했기



* 체험리즘
=체험+저널리즘

때문인데요, 처음 석사과정 이수할 때 저는 자영업
하고 있었어요. 자영업자에게 휴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석사 수업이 있는 날은 돈 벌기를 포기하자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중간에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배려해 주셔서 반차를 내고 수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 근무하고 점심도
못 먹으면서도 시민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려고 연차
내고 휴식이나 여행 대신 시민대학을 선택한 거죠.

진행하고 싶은 연구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체험리즘’* 기획 기사를
작성해 보고 싶습니다.
연구 결과물은 서울시민기자단에서 시도해 보지
않았던 주제를 해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석사과정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성장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마음 하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글쓰기가 사실 머리 아픈 일인데 다른 기자들도
성실하게 참석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시민대학은 단순히 수료증이 목표가 아니라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참석하는 것이니까요. 일반 교육의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를 틀어만 놓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시민대학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에게 유익이 없잖아요. 저는 시민대학 수업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필기하면서 열심히 들어요.
아마 다른 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필요성을
느끼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동기 부여를 계속 해
주었습니다.

명예시민학위제 참여 전과 후를 비교해 본다면.

일상의 ‘밀도’가 높아졌어요. 기사를 써야 한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항상 오감을 열어놓고 보게 돼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기사
소재를 찾기 위해 동네 행사 현수막도 더 열심히 봤죠.
결국 누구보다 서울 사람이 되었어요. ‘아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 시민대학, 명예시민학위제란?

‘키다리 아저씨’처럼 저를 도와주는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양질의 수업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님과 강사님, 학습매니저님들이 함께
시너지효과를 내서 저희를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민석사과정에 참여할 후배 학습자에게 전하는 한마디.

글쓰기에 관심 있거나 시민기자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과정을 꼭 이수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강의
내용과 형태도 다양해서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또
시민기자단 활동이 시민대학과 함께 병행한다면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우선 문을 열고 나오면 걷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멋지니까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

끝까지 석사과정을 완주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프로 시민기자가 되어 제가 쓴 기사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거나 유익한 소식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사과정 중 작성한 기사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작성한 기사는 다 석사과정 중에 작성한
기사예요. 주로 문화와 복지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광화문 달빛 요가, 취업 날개 서비스, BTS 데뷔
10주년 축제, 복춘 색실 누비 바늘꽃이 만들기’ 등이
있죠. 특히 석사과정 첫 수업을 담은 ‘찐 시민기자가
되기 위해! 시민기자 석사 과정 듣고 있어요.’를
작성한 기억이 나네요.

시민기자-시민석사과정이 실제로 기사를 쓸 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기사 사례를 보면서 안목이 길러졌어요.
예를 들어, ‘뽕히고 읽히는 기사거리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가 되어보자’라는 수업을 통해 다양한
기사를 보면서 뉴스 가치를 판별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기사를 써야 선택받을
수 있을지 고심하게 돼서 전보다 더욱 발전한 기사를
탄생시킬 수 있어요.

제가 쓴 기사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거나 유익한
소식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자 롤링페이퍼

새로운 시도와 좋은 결실,
시민대학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연구로 곳곳의 빈자리를 채우면
좋겠습니다.

시민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광의의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마음에 크게
남습니다. 내가 하는 대가 없는 모든
행위가 자원봉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광의의
자원봉사를 합니다.

모두에게 격려가
되는 행복한 공감
덕분에 값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서울시민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한 자, 한 자 빠놓지 않고
기록하여 보관하면서 한 번씩
들여다보곤 합니다. 훌륭한
교수님께 배울 수 있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명예시민학위제는 평생교육과
대학원 진학, 더 나은 삶을
꾸꾸는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교수님들의 강의 덕분에 걱정만
하던 글쓰기도 시작했습니다. 옛
기억을 꺼내 눈물, 콧물도 흘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합니다.

지식을 얻고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욕이 솟구쳤습니다.
한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열의와 정성에 감동받았고,
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시작한
시민대학 박사과정 시간과
비례하여 나는 서서히 된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박사과정 1기
동기생님들~ 끝까지 함께해요.
아자! 아자! 화이팅~!!

“나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도 꿈과 열망을 갖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용기와
자신감을 불태우는 ‘나’,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선배 시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되었고,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곳, 저 곳에서
공부하며 바쁘게 보낸 뜻 있는 한해였고,
교수님들의 강의는 너무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좋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책을 읽다가 문득, 배움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시던 할머니 생각에 코 끝이
짙합니다.

이제 결승선이 머지 않았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자!^^

사계절을 다 품고 불어오는 4월의
바람, 아리아의 음율은 지친 마음의
여유를 주고, 햇빛 살짝 내미는
남산둘레길 싱그런 6월의 하늘,
따뜻한 말로 만나는 자기돌봄시간
with 동기들의 열정, 애정, 웃음,
기억

많은 지식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터,
시민대학에서 오늘도
배움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시민학위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합니다.

귀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멋진
시민기자 분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에
쫓겨 다닌터라 수강시간만큼은 더
집중했고, 재미있었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결과물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어 고맙습니다.

명예시민학위제를 통해 일상에서
쉽 없이 도전하는 동기들을 만나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쳤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 나의 인내심을
칭찬해!
바쁘지만 노력하는
동기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산다는 생각이 들게 한 것이
‘명예시민학위제’였습니다. 시민대학
강의를 들으며 캠퍼스를 다니고, 강의에
집중하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익어나가는 나이에 또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쁨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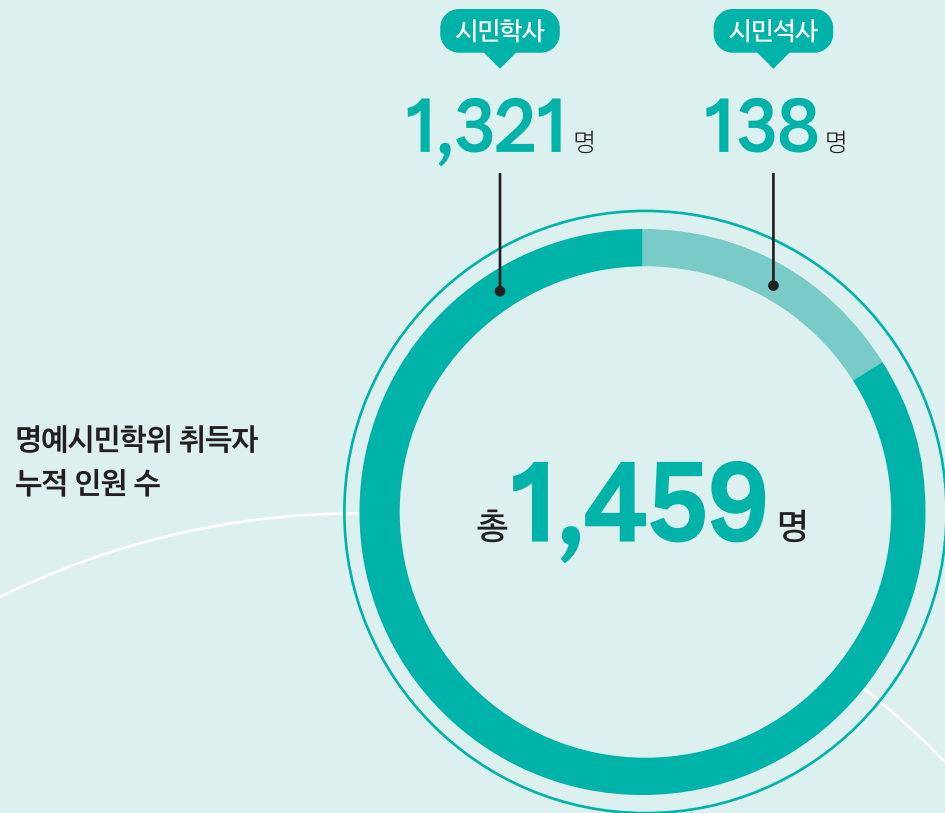
4

사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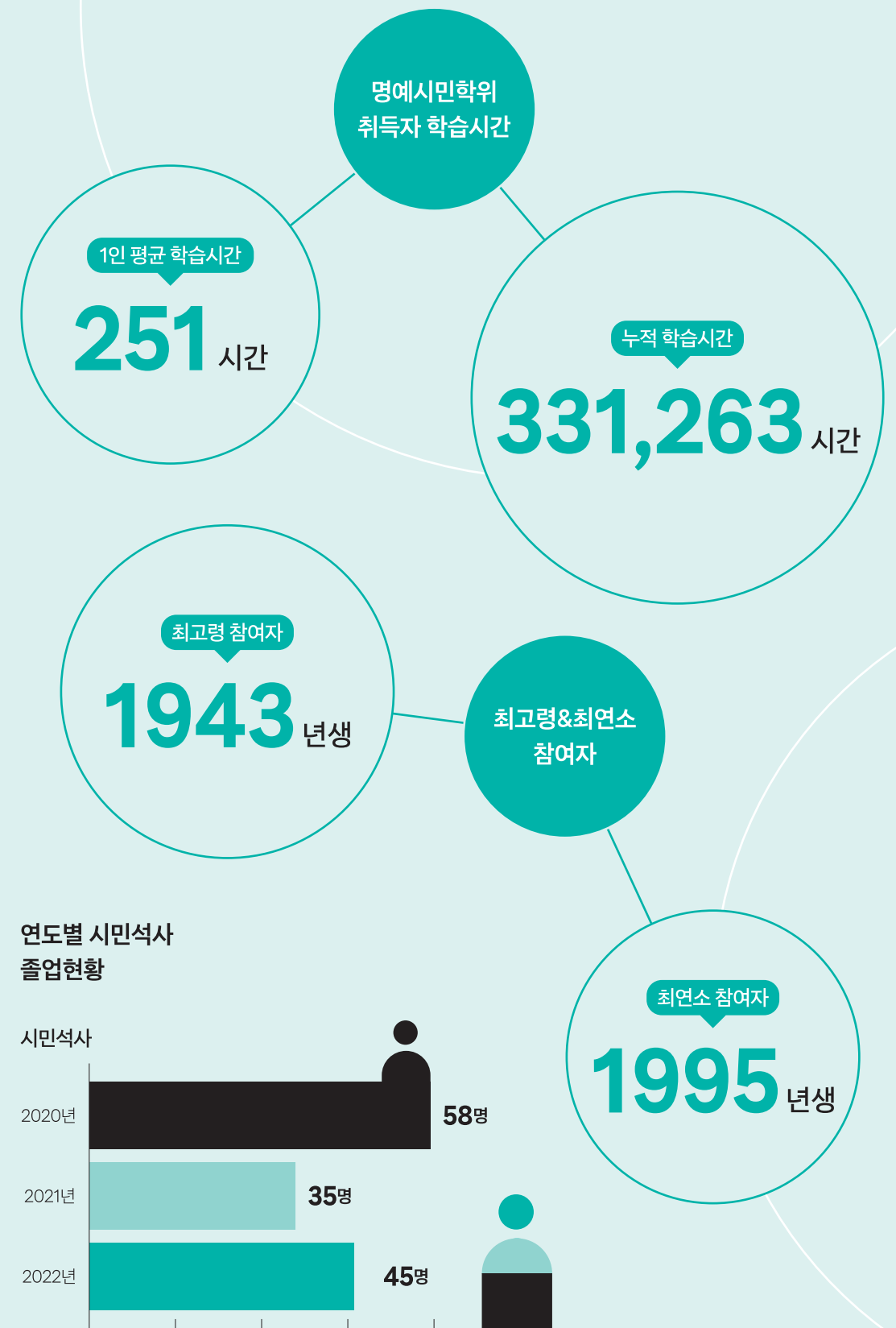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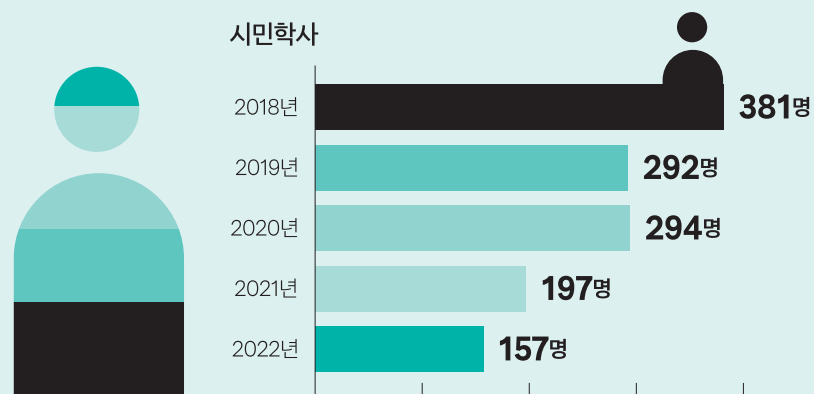
- 숫자로 만나는 명예시민학위제
- 역대 연구 결과물 목록



숫자로 만나는 명예시민학위제



연도별 시민학사
졸업현황



역대 연구 결과물 목록

2020년 서울시민대학 전공세미나 연구 결과물 목록

*1개(일반)트랙 운영

연번	구분	연구제목
1	서울학	경복궁 근정전 서수(瑞獸)에 대한 검토
2		궁녀로서 선각자적 삶을 산 여인들
3		서울 명산 계곡에서 만나는 암각서(바위 글씨) (도봉산-수락산)
4		조선 궁궐의 ‘내’와 ‘울’ (금천禁川) (꽃담, 취병翠屏)
5		서울시 무형문화재 장안편사의 역사적 의의 (조선시대 대사례와 향사례를 중심으로)
6		광화문 광장 공간 구조의 변화
7		서촌(西村) 톨아보기
8		세계 속의 대도시 서울의 역사와 앞으로의 과제 [조선시대 말 개항기~현재]
9		19세기 조선을 움직인 노론정치의 명암
10	시민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또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윤리학>과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행복한삶>에서 찾아보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11		플라톤의 국가 읽기 - 훌륭한 삶과 훌륭한 국가 생각하기
12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연구 - 작품에서 본 소유와 존재, 영화 「피아노」, 법정수필 「무소유」를 사례로
13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학습자의 참여 양상에 관한 연구
14		배움의 생애사에 비취본 자화상(부제: 참사람으로 가는 평생교육)
15		신중년(5060)의 생애설계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16		현실치료이론에 비추어 본 배우자 사별(상실)의 회복과정에 대한 탐색
17	학습경험	어느 금융직 은퇴자의 학습 생애사
18		자전적 생애사 연구 - 자격증 취득을 중심으로
19	세대경험	[팀] 인생은 초행길 - 세대 경험의 사회적 공유를 중심으로
20		한국 포슬린 페인팅의 동향과 발전방안
21		초보자를 위한 오페라 가이드
22	문화예술	스리랑카 그림책에 드러난 문화적 특성 - (세왕자이야기), (달아난수염), (우산도둑)을 중심으로
23		[팀] 주민자치회 운영 매뉴얼
24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시대의 생애설계와 자산관리
25	사회경제	중산층 노년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 및 상속 대책

연번	구분	연구제목
26	사회경제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실버 여가 산업에 관한 고찰 (액티브시니어란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27		실버금융에 대한 국내사례와 발전방안
28		사회적 상황에 따른 인식변화 연구를 통한 바람직한 미래설계에 대한 제언 - 인터넷 보급 전후를 중심으로
29	미래사회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30		미래사회 실존위협 - 기후변화 위기의 실체 극복
31	식물	우리 마을 식물 백과사전 만들기(가을편)
32	환경	지구를 위한 노력
33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생산의 위협과 대응방안
34		기후변화 위기와 윤리 문제
35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36		기후위기 - 현실로 다가온 지구온난화 문제와 대처방안
37	고전	<열하일기> 속 연암 박지원
38		연암 박지원의 삶과 작품에 투영된 이상적 인간상
39		어느 한 역사가의 역사 - 사마천의 생애와 업적
40		판소리 <수궁가> 사설 주해(註解) - 한시(漢詩) 포함
41	인문	한국 근현대 언더우드의 선교활동 연구
42		역사의 연구 - ‘토인비의 호기심’ 강의안
43		프라하 칸타타 Cantare of Prague : 인문학으로 접근해보는 유럽도시 자연, 역사, 문화, 예술, 인물에 대한 고찰 - 프라하편
44		나는 이렇게 살았다 - 안동에서 서울까지, 일하고 배우며 80년
45	글쓰기	내 생의 거울, 우리 가족
46		[시] 길 밖에서 길을 보다
47		[시] 바보 전태일
48		삶을 되돌아보며 적는 이야기(자서전)
49		자서전
50		나의 인생 역경대학
51		허드슨 강은 양쪽으로 흐른다 (부제 :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52		쓸데없는 일이 난 즐겁다
53		당연한 길은 없어도 다양한 길은 있다

연번	구분	연구제목
1	서울·궁궐	한한 서울 집값, 한양에도 있었다
2		조선후기 경제·문화공간 한강
3		경강(京江) 지역의 상업 활동
4		조선시대 시장과 상인들
5		서울의 놀이문화
6		서울의 역사 인물 동상
7		서울의 보호수 - 서울에 생존해있는 노목 이야기
8		한·일 궁궐의 구조와 기능 비교 - 창덕궁(昌德宮)과 교토고쇼(京都御所)를 중심으로
9		광화문 앞 서수(瑞獸) 해태
10		조선시대 내시부와 내시
11		조선시대 궁중의 주방과 조리인
12	평생교육	난생처음 100세, 평생현역으로 살기: 강의개발
13		「스피치와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
14		내 인생 쓰는 만큼 보인다 - 시민연구회 생애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15	문화·예술	빛의 화가 베르메르, 일상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다
16		순자의 군도편을 중심으로 본 공공 리더십
17		선재동자 구도의 노래, 보현심원가 - 보현행원품을 중심으로
18	인문·기타	‘성호사설’의 공리주의적 경제정책 연구
19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생존전략 - 돈키호테와 동행
20		현대사회의 젠트리피케이션의 철학적 고찰: 인간 욕망을 중심으로
21		호스피스와 죽음, 웰다잉에 관한 고찰 - 호스피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22	공동연구	스타트업의 유형별로 분류한 상호명의 특성에 관한 연구
23		마을 활동의 가치를 찾아서, Maeulinside
24		자연자원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연구 - 햇빛과 비, 자연을 활용한 실천방법
25		대한민국 베이비부머의 삶의 궤적의 미래 설계
26		나는 내 이름처럼 살았다
27		자서전 쓰기 - 이제 앞이 보인다
28		49년생 김재현 - 여자의 일생
29		「책과 사람들」 - 나의 평생교육 60년사
30		나는 나다 - 내 인생의 키워드 5
31	글쓰기	거북이 같이 달려보자 내 인생

연번		구분	연구제목
1	일반트랙	서울학	조선후기 유만주의 일기 흥영을 통해서 본 서울 동북풍경
2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경희궁 이야기
3			경복궁과 창덕궁의 비교연구 - 6가지 공간을 중심으로
4			(영상 결과물) 성종의 생애를 따라가 보는 서울 탐방
5		시민학	활력있는 노년생활을 위한 꿈망태 조사, 분석 (70대 이상 전전(戰前) 세대를 중심으로)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연구
7		인문기타	인간불평등기원과 사회권 논쟁
8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제도 개선(안)
9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청소년·아동·청년 행정기구 시스템에 관한 연구
10		글쓰기	웹툰 유행어에 나타난 젊은 세대의 의사소통 상 특성 분석
11			천천히 산책하며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한다
12			지금도 늦지 않다
13			나, 그리고 우리, 순간의 기억들
14		실천트랙	연구 및 자전 에세이
15	자원봉사 활동의 추억을 더듬으며		
16	울 어머니는 “항상 배워서 남 주어라” 했다		
17	마을기자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 실천		
18	일상 생활 속에서 자원봉사와 나		
19	폴꽃 향기 같은		
20	내 몸속의 유전자 오지랖		
21	반짝이는 자갈돌 같은 내 인생		
22	내가 캐는 보화 이야기		
23	울타리 같은 마음으로		
24	강남구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경험사례 - 이것이 리빙랩이다		
25	40년 재봉틀쟁이 4천시간 자원봉사 전문가 되다		
26	나는 봉사왕!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27	자원봉사자 경숙이 이야기		
28	봉사활동 분석틀 개발을 통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연구		
29	조손가정 어르신인 손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푸른동작 마켓컬리프로그램		

연번		구분	연구제목
30			수혜자에서 봉사자로 - 중계본동 자원봉사 캠프 사례를 중심으로
31			서울의 미래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선택 - 지구 에너지 여행
32			안전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연구
33			학부모 참여형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34			환경을 중심으로 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연구
35			노인들을 위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지역에서 자원교육봉사를 하면서
36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방문요양/주·야간보호서비스 중심으로
37	실천트랙	연구 및 자전 에세이	(공동연구) 자원봉사교육이 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38			(공동연구) 쉽고 재미있게 자원봉사 시작하기
39			자원봉사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CO2 환경 만들기
40			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사례
41			자원봉사는 음악이다
42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43			그림책지도를 활용한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 - 남강고등학교 따봉 프로그램
44			천만원짜리 초코파이

발행일 2023. 12.
발행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기획·운영 학습설계팀 황미연, 홍슬비, 박경현
디자인·편집 131WATT
함께한 사람들 오늘도 열심히 학습 중인 명예시민학위제 참여자 전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02)739-2751
www.slei.seoul.kr

